





달라이라마는 6월 26일 열린 한국인 대상 친견법회에서 보리심과 선한 마음을 당부하며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이 아닌 행복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과학은 양 날개…공성 지혜 증장"

박영빈 객원기자의 달라이라마 존자 친견기

6월 26일 한국인 대상 친견법회
불교와 과학 교류 중요성 강조해
韓 애정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한국인만을 위한 보살계 수계도
"함께 하겠다"는 말에 눈물 왈칵

인도 다람살라=박영빈 객원기자

3년만 이다. 달라이라마 존자를 친견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한국인 친견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방문이 어려워진 이래 거의 3년만에 잡힌 자리였다. 내 기억에 마지막으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것은 2020년 1월 보드가야였다. 외국인 단체 친견에 한국인 그룹이 낀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은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동행한 남카 스님께 전해 들었다.

이번 한국인 대상 친견 법회는 〈불교과학총서 1: 물질세계〉를 봉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불교과학총서' 는 달라이라마가 기획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발간됐으며, 올해 5월 경 한국어판이 발간됐다.

인도로 가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높았기에 개인방역도 신경써야했다. 6월 25일 아침 인천을 출발해 6시간가량 비행후 델리에 도착, 다시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익일 아침 다람살라에 도착했다. 일행들 모두가 장기간의 이동에 지쳤지만 달라이라마를 곧 뵐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모두 들뜬 모습이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에서 사람이 나와 검사키트로 음성임을 확인 받고서도 만일을 위해 숙소 밖을 나가지 않고 몸을 사렸다.

친견일인 6월 26일 아침, 달라이라마 관저 입구에서는 철저한 보안검색이 이뤄졌다. 먼저 친견자 명단에 따른 신분확인과 소지품 확인 등이 진행됐다. 휴대폰이나 카메라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는 모두 반입금지라는 공지를 들었기에 미리 호텔에 맡기고 나와 큰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이날 단체 접견이 몇 건 잡혀있는지 길을 안내하던 경호원은 한국인은 별도의 접견장소라며 티베트인들과는 다른 길로 안내를 했다.

도착한 접견실은 흔히 달라이라마 사무국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 보던 장소였다. 벽에는 날란다의 논사들을 묘사한 불화가 걸려있고, 달라이라마의 자리 뒤로는 고행상이 중앙에 모셔져 있었다. 달라이라마는 고행상을 좋아하여 침실 머리맡에 오직 이 고행상 사진 하나만이 걸려있다고 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고행과 노력을 거치셨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한다. 아침 9시 20분경 시자들의 부축을 받아 달라이라마께서 접견실로 들어오셨다. 법문은 라디오를 통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먼저 '불교과학총서' 의 한국어판 발간 소식을 듣고 불교와 과학의 대화와 합일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불교와 양자물리학의 동일한 점을 대중에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달라이라마는 "오직 언설과 명칭만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중관의 견해와, 관찰자가 관찰하는 순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양자물리학의 견해는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이 불교와 과학간의 대화와 소통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판단하는 객관이나 주관은 결국 서로 의지하는 하나일 수 밖에 없다"며 연기법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풀이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러한 과학적인 논리와 해석의 목적으로 "불교를 수행하는 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살피고 그 견해를 분석하는 것은 모두 중생들을 위한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함이다. 이 둘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야한다"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중생으로 모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한 중생이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이 아닌 행복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리심을 일으켜야한다"며 보리심과 선한 마음을 가질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한국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보였다. 자비에 대해서 설하면서 한국의 분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달라이라마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민족이 서로 등지고 살아야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이다. 서로를 향한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유와 통일을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어 "전세계를 여행하면서도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오래전부터 한국 방문을 소망했으나 이제는 다리가 불편하여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지금처럼 여러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며 언제든지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춰보였다.

법문 뒤에는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첫 질문은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 현재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달라이라마는 여기에 대해 즉각 "언제나 자비를 가지고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금 보리심에 대하여 짧게 강조했으며 가능한 모두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했다.

이어서 나온 질문은 '불교와 과학, 특히 양자역학 이 둘을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다. 달라이라마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교차점은 바로 공성에 달려있다. 모든 불교의 부파와 전통에 공성의 가르침이 있다. 공성의 논리가 불교와 과학의 합일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질문은 인도에 오기 직전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한 불자의 질문이었다. "망자를 위하여 어떠한 기도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먼저 불자의 어머니를 위해 잠시 기도한 후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예시로 답을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올렸다. 자비의 본존이신 관세음보살께서 세세생생에 어머니를 돌봐 주시길 기원하며 60만 번의 육자진언을 회향했다"고 일렀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달라이라마는 참석한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보살계를 수계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우슬착지 혹은 호궤합장으로 바닥에 앉아 달라이라마의 인도에 따라 계를 수지했다. 계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게송을 3번 반복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서원한 한국인 대중들은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되겠노라 다짐했다.

달라이라마는 수계식이 끝나고 부처를 이루려는 목적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패러글라이딩은 바람을 타고 목적지로 간다. 나는 여러분의 바람이 되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세세생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불자들이 이 말에 눈물을 보였다. 필자 역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1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법문은 긴 여운으로 이어졌다. 참석자 중엔 몇 번이나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거나 법문을 들은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과 같이 특별함은 없었다"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감동과 감사를 이야기 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번 만남은 오직 한국인 불자들을 위한 법문과 번역본 봉정을 위한 것이었기에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공식 일정 공지에는 전혀 올라가 있지 않았다. 달라이라마는 보통 3년간의 공식 일정이 모두 차있다고 한다. 그런 바쁜 일정 속에 오직 한국인 불자들을 위해 단독으로 시간을 마련하고 수계식까지 집전해 주신 노스승의 은혜에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관저를 나왔다.

대한불교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2022년 하반기 종도모집

재단법인 영산법화회는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으로 법화조사님의 개창 66주년을 맞이하고 동시에 장흥도량에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 법화경에 인연 있는 종도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화경 전문 도량으로 현재 공찰이 미국 LA 외 전국19개 도량이며, 기본자산이 일천억이 넘은 법화 제일 도량입니다. 스님 복지 우선으로 4대 보험, 각종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이며 교단에 법주 이신 행학 큰스님을 위주로 법화홍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법화도서관 및 법화노인요양원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화홍통(法華弘通)으로 꿈과 희망을 찾으시려는 재능 있는 많은 인재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나무묘법연화경

- **모집대상** : **출가승려, 행자, 법화경 연구자, 사찰등록 하실 분**
- **모집인원** : 00명
-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사진 3매
  법당내부 · 외부 사진(사찰등록하실 분), 타종단 법랍인증(승려증사본)
- **출가행자 모집** : 18세 이상
- **분 담 금** : 상담 후
- **영산법화사 각 도량 소개** : 영산법화사 홈피(http://ysbuphwasa.org) 참조
- **디지털법화도서관** : 법화경 관련 서적 50여종
- **문의전화** : 02)762-4922 (서울 종로구 동숭길116 영산법화사 본사)

※ 본 재단은 개인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인증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부동산 융합풍수학과

- 개 강 : 2022년 9월 19일(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교육비 : 월 7만원

여해스님 (부산이산학회 회장,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